

…제 2 부에 이어서)

개미발자국

제 3 부

34. 시스템타워 - 실내/오전

조용한 복도

바닥, 은빛 패널 위로 세사람의 발 소리가 낮게 울린다.

벽면은 배관과 케이블이 정밀하게 노출된 채 일렬로 뻗어 있다.

마치 신경 다발처럼.

천장은 LED 모듈 사이로 간헐적인 전자음이 귓가를 간질인다.

멀리서 회전하는 팬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윤정우가 걸음을 멈춘다.

‘SYSTEM TOWER’ 라 각인된 자동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다.

그가 다가서자, 문은 소리 없이 열린다.

안쪽 빛이 스며 나온다.

CUT T0) 로비

푸른 계열의 조명이 공간을 차갑게 채운 공간.

좌우로 매끈한 원형 유리문이 마주 보고 서 있다.

투명한 표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기계장치의 실루엣.

윤정우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김인호와 아내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말없이 그 뒤를 따른다.

입구 오른편, 데스크 뒤에 여직원이 앉아 있다.

닮은 얼굴,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미소.

그러나, 이름표는 다르다.

이름표를 바라보는 아내 민정의 눈이 순간 흔들린다.

아내 (V.O.) “복제?”

여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여직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정우가 주머니에서 얇은 카드를 꺼내 판독기에 댄다.

‘呻-’ (짧고 날카로운 인식음)

태블릿이 제공된다.

윤정우가 사인한다.

여직원 “두 분도, 여기에…”

아내는 여직원을 쳐다본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잠시 망설인다.

아내의 손을 떨며 펜을 쥔다.

김인호가 펜을 쥔 아내의 손을 살짝 잡는다.

그녀는 사인한다.

뒤이어 김인호도 사인한다.

여직원 “확인되었습니다.”

여직원이 무표정으로 태블릿을 회수한다.

카운터 뒤 콘솔로 이동해 손끝으로 버튼들을 누른다.

‘틱, 틱, 틱…’

기계음이 로비에 울린다.

곧이어,

‘저-어어어어-’ 깊고 낮은 저주파음.

여직원의 등 뒤, 두꺼운 문 위에 달린 조명이 깜빡인다.

잠시 불규칙하게 떨리더니, 문이 부드럽게 열린다.

문 위 금속판

‘QTR’ 세 글자.

처음엔 은빛으로 빛나더니, 이내 붉게 바뀐다.

카메라는 부부의 불안한 얼굴을 비춘다.

35. QTR 투 - 실내/외전

윤정우를 따라 김인호 부부가 내부에 들어서면,
들리는 스피커 음.

기술자 2 (OFF) (스피커)

“동기화 세션을 시작합니다.

선택된 기억 기반, 시간 접속 경로 설정 중.”

정면의 무대 벽 전체는 거대한 타원형 스크린이 자리잡고 있다.
스크린에는, 빛의 결이 다른 선들이 서로 얹히고 풀리기를 반복한다.
푸른빛과 황금빛이 교차하며 순간적으로 터지고, 그 틈새로 붉은 섬광이 찢기듯
스쳐 지나간다.
저주파와 박동이 겹칠 때마다 스크린 표면이 뒤틀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린다.

PANNING)

카메라가 스크린 앞, 3단으로 배치된 반원형 데스크를 비추면,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빽빽이 앉아 있다.
모두 흰색 계열 제복, 가슴에 단 명찰엔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다..
정밀하고 일사불란하다.
군 전략지휘실이 연상된다.

누군가의 키보드 타건 음
빠른 템포로 겹쳐지고,
중간중간 모니터 신호음 ‘비비’, ‘비비-’ .

INSERT) 기술자 모니터

실시간으로 흐르는 뇌파 기반 감응 코드.
가느다란 전기 신호가 세로로, 대각선으로 교차하며 맥동한다.
간헐적으로 노이즈가 끼며 그래프가 흔들린다.
기술자들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여 수치를 교정한다.

TRACKING)

윤정우가 김인호 부부를 계단식의 중앙 좌석으로 안내한다.
검은 가죽 시트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윤정우가 부부를 향해 손짓한다.
김인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자리에 앉는다.

윤정우는 부부가 앉은 의자 바로 앞, 통제용 데스크가 마련된 좌석에 앉는다.
그의 손끝이 콘솔 위에 놓인다.

CRANE DOWN → DOLLY IN)

중앙 무대 앞 낮은 공간에 조명이 켜지면.
카메라가 그곳으로 다가간다.
은빛나는 투명한 기계 장치 속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가슴 위로 은빛 센서들이 박혀 있고, 미세한 푸른 불빛이 맥동한다.
머리엔 인터페이스 선들이 잔뜩 달린 헬멧이 씌워져 있다.

CUT TO) 김인호 부부

카메라가 김인호 부부를 클로즈업한다.
아내는 놀란 눈.
'헉' 소리나는 입을 오른 손바닥으로 막는다.
그녀가 김인호를 돌아본다.
김인호의 놀란 눈이 아이를 응시한다.

CUT TO) 윤정우

윤정우가 콘솔위에 놓인 컨트롤 보드를 조작하면,
천천히 꺼져가는 조명.
잠시 뒤 아이가 누워있는 공간만이 푸른빛에 잠긴다.

침묵 속 미세한 기계음이 또렷하다.

CUT T0) 무대 위

잠시 뒤, 스크린 앞 천장 한가운데에서 어둠을 가르며 내려오는 한 줄기 빛.

반짝이는 먼지 같은 빛의 입자들이 훌날리듯 퍼졌다가, 이내 서로 끌리듯 모여든다.

천천히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빛 속에서 생생해지는 원뿔 모양의 홀로그램.

먼저 아래쪽으로 뾰은 원뿔이 형성되고, 곧 이어 그 꼭짓점 위에서 대칭되는 원뿔이 만들어진다.

두 개의 원뿔은 마치 모래시계를 연상케 한다.

그 구조물은 공중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한다.

원뿔 내부에는 수없이 작은 입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파동처럼 일렁인다.

잠시 뒤, 수백 개의 점들이 동시에 깜박이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점점 서로 가까워지며 응집된다.

그리고 마침내, 두 원뿔의 중심을 관통하듯 한 줄기 강렬한 빛기둥이 형성된다.

그 속의 작은 점들 가운데 하나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박동하듯 맥동하며 빛을 내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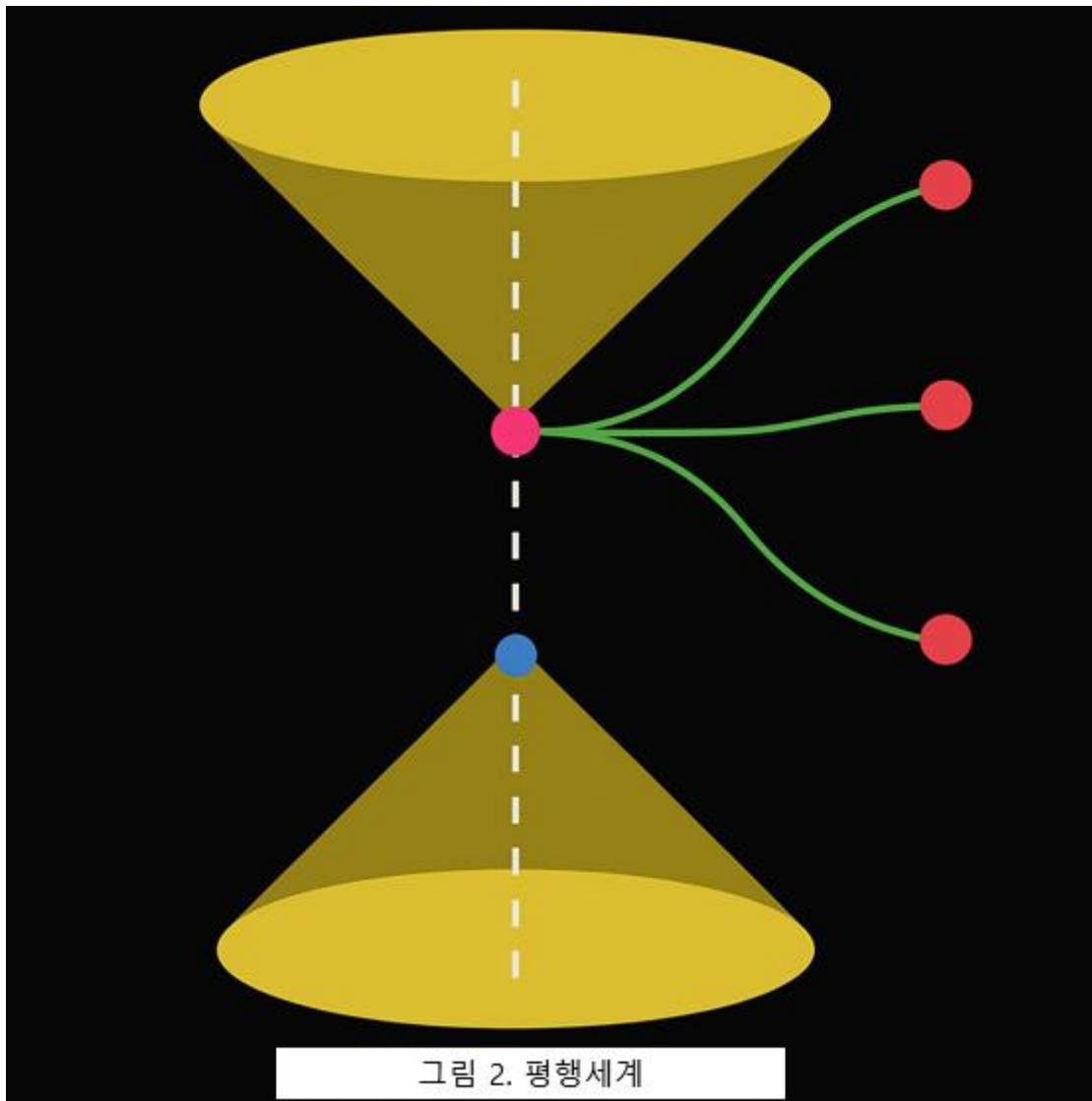


그림 2. 평행세계

그리고 마침내, 두 원뿔의 중심을 관통하듯 한 줄기 강렬한 빛기둥이 형성된다. 그 속의 작은 점들 가운데 하나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박동하듯 맥동하며 빛을 내뿜는다.

윤정우

(부부를 돌아보며)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5차원 평행세계
다이어그램입니다. 지난번 설명회서 보셨던
민코프스키 4차원 지도를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원뿔이 맞닿은 지점이 보이시죠?

늙게 맥동하는 이 점이 바로... 아드님의
과거 존재 좌표입니다.”

(잠시 멈추며, 손가락으로 점선을 따라 움직인다)

“가운데의 흰 점선은 시간 좌표입니다.

아래쪽 원뿔은 과거의 존재 공간,
그리고 위쪽 원뿔은 현재로 이어지는
존재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 경계. 두 월뿔이 맞닿는 숲가—

바로 그곳에서 아이는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녹색 선이 뻗어 나가는 부분을 강조하며)

“붉은 점에서 퍼져 나가는 녹색의 선.

이것이 존재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끝단의 붉은 점들,

그곳이 바로 새로운 시공간에서 아이가 살아갈 자리입니다.”

(조용히, 힘주어 마무리)

“5차원 메모리 플레인’은 이렇게

아드님의 삶의 궤적을,

새로운 시공간 위에 다시 그려드립니다.”

윤정우가 마이크를 향해 외친다.

유점우

“위치 값 설정.”

순간, 아이의 머리에 씌워진 헬멧에서 정전기처럼 ‘지/직-’ 튀어 오른다.

붉은 점은 더욱 생생히 맥동한다.

공간 전체에 퍼지는 희미한 전자음… ‘웅-’

바닥의 의자가 미세하게 진동한다.

순간, 화면이 좌우로 분리되며 원래의 원뿔체 이미지는 왼쪽 화면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스크린에는 거대한 광케이블 형상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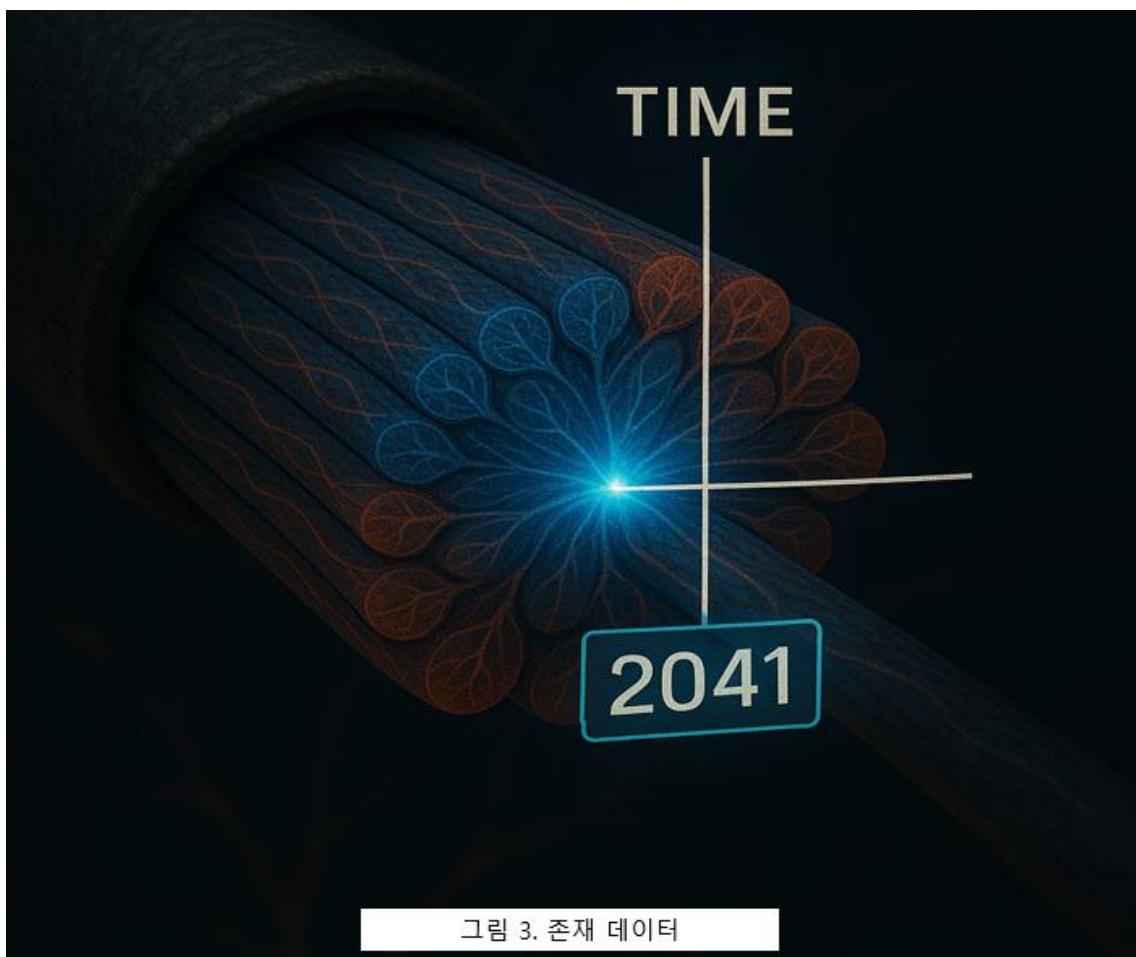


그림 3. 존재 데이터

곧이어 케이블 끝단이 클로즈업되면,

검은 외피 속, 수백 가닥의 섬유가 춤춰히 자리한다.

섬유마다 색이 달라, 푸른 빛과 붉은 빛이 교차하며 맥동한다.

현미경으로 신경 다발을 보는 듯한 정밀함.

잠시 뒤
광케이블 속 섬유 속에서 불빛이 튀어나온다.

“틱, 틱, 틱-” 전기 스파크 소리.

이어, 신경다발처럼 보이는 단면이 홀로그램으로 확대되면, 생생해지는 단면 내부, 수천 가닥의 섬유가 드러난다. 각각이 다른 색을 띠며 살아 있는 듯 미세하게 꿈틀댄다. 신경 세포의 신호가 흐르는 듯한 장면.

그가 김인호 부부를 바라보며 말한다.

윤정우

“저 빛나는 신경다발은 아드님의 4년전의 존재 데이터입니다. 교통사고 1년 전 시점의 데이터지요.”

(잠시 침묵)

“그리고 저 지점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공간 위에, 또 하나의 궤적을 그리며…

(잠시 침묵)

잠시 더 지켜보시지요.”

오른쪽 화면의 거대한 광섬유 다발 속,
유난히 짙푸른 빛을 발하는 한 가닥이 도드라진다.

CLOSE UP) 한가닥

한가닥을 클로즈업하면,
그 표면이 단순한 빛줄기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닥의 미세한 섬유들이 얹혀 있는
‘광섬유 숲’. 각각의 가닥은 미세하게 떨리며, 맥동한다.

윤정우가 조용히 말한다.

윤정우

“저 짙푸른 섬유, 존재 데이터 중 뇌

데이터입니다.

DOLLY IN)

점점 더 생생해지는 광섬유의 숲.

이어 수많은 광섬유 중, 하얗게 타오르는 가닥을 확대하면,

가닥의 끝단에서 섬세한 불꽃들이 폭발하듯 내뿜는다.

주변의 빛 가닥들도 미세하게 반응하며 일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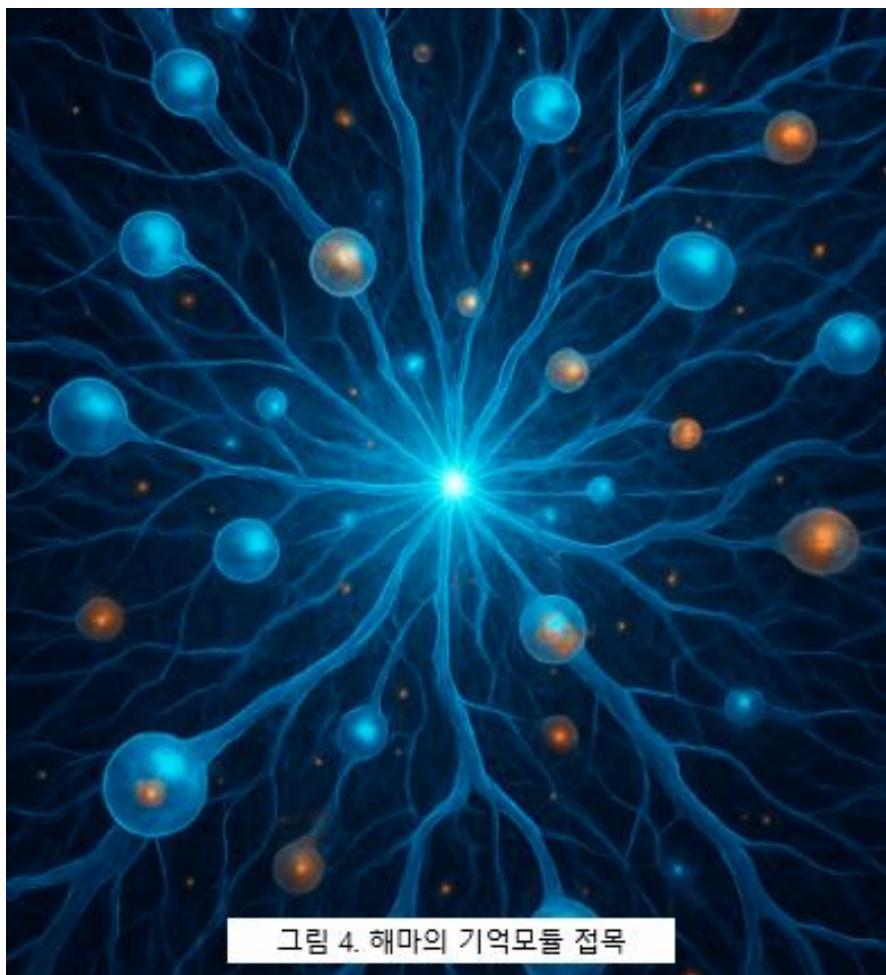


그림 4. 해마의 기억모듈 접목

윤정우가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말한다.

윤정우

“하얗게 타오르는 가닥, 바로 해마의 기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만든 표준 기억 모듈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기억 모듈은 새로운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트리거입니다.
저 작은 선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머지않아 존재 전체의 궤적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시선을 스크린에 고정한 채, 잠시 호흡을 고른다.
흰 불꽃은 한순간 반짝이더니,
서서히 붉게 번져 타오른다.
점차 그 빛은 커졌다가 점차 수축하듯 줄어들며,
곧 다시 평온한 맥동을 되찾는다.
그러나 그 순간, 고요했던 다발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때 기술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린다.

기술자 1 (OFF) “정위 파동 도달! 전두엽 감응 확인!
시냅스 활성 수치, 기준치 돌파 중!”

붉은 점이 맥동하며 흐릿한 녹색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순간, 벽쪽 보조 스크린에 떠오르는 상태 메시지.

INSERT) 벽쪽 보조 스크린

「Phase Stability: 92.34% → 93.57% → 95.01%
Synchronization Rate: 98% → 98.12% → 98.34%」

기술자 2 (OFF) “동기화율 98% 돌파! 목표치 상회합니다!”

순간 벽쪽 보조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면,

「SYNCHRONIZATION INDEX: 98.34%
TIME SET: - 16m 04s
STATUS: STABLE - LINK ACTIVE」

(잠깐의 정적. 3초)

기술자 1 (OFF) “…접속 완료.”

천장과 벽의 조명이 서서히 켜지면,
윤정우의 흥분을 누르는 듯한 얼굴.

윤정우 “아드님의 과거 좌표에서 표준 기억 모듈이
심어졌습니다. 임상결과 싱크로율 70%면
성공입니다. 오늘의 싱크로율은 98%를 넘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아드님의 궤적은 안정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앉아서 흥분을 식힌다.

CUT T0) 김인호 부부

여전히 굳어 있는 김인호의 얼굴.
천천히 아내를 돌아본다.
아내의 감격에 찬 얼굴,
눈가에 맺힌 이슬방울이 스크린 빛을 받아 반짝인다.
김인호의 눈빛을 눈치채고 아내가 그를 바라본다.
김인호가 억지로, 미소를 보낸다.

잠시 뒤

김인호 부부를 향해 부드럽게 손바닥을 펼쳐 문 쪽을 가리킨다.

윤정우 “이제 나가시죠.”

김인호 (놀란 눈빛)
“…벌써 끝난 건가요?”

윤정우 “네, 다 잘 되었습니다.
아드님은 건강하게 새출발하셨습니다.”

순간, 김인호의 일그러지는 표정.

김인호 (V.O.) “윤정우는 분명 ‘뇌를 활성화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싱크로율 98%’라고…
뇌 과학자인 나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잠시 침묵)

“중앙 뇌의 지시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윤정우.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러나 아내는 아이의 새로운 출발에 행복해하고
있다.”

잠시 뒤
윤정우가 일어선다.
김인호 부부도 일어선다.
윤정우가 앞서고, 부부가 그의 뒤를 따른다.

곧 들어왔던 문으로 나간다.
그때, 그들의 등 뒤로 들리는 목소리.

기술자 1 (OFF) “세션 로그: 98.7% 일치. 데이터 백업 완료.
시공간 좌표, 해제.”

36. 시스템타워 로비, 실내/외전

로비의 불빛,
더 차갑고, 어쩐지 더 푸르다.

윤정우 (김인호 부부를 돌아보며)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아드님을 직접 만나기 위한 뇌 정보 수집 단계지요.”

그는 QTR실 맞은편의 데스크로 향한다.

데스크 뒤, 여직원.
그녀는 얇은 미소로 태블릿을 내민다.

여직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는 윤정우.
김인호 부부도 펜을 들어 서명을 남긴다.
여직원, 말없이 버튼을 누른다.

“칙-” 하는 소리.
데스크 왼편 문이 천천히 열린다.

문 위 금속판 위의 단 두 글자.
‘BC’

빛을 받아 선명히 드러난 음각.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는 김인호.

김인호(V.O.) "... 뇌수집(Brain Collection)일까?"

37. BC룸, 실내/오전

넓은 공간.
차갑고 희미한 조명.
냉기가 서늘하다.

중앙에 놓인 스테인리스 수술대 두 개.
천장 위 수술등이 매달려 있다.
그 옆에는 로봇 수술 팔이 움츠린 채 대기 중.
금속 빛이 번쩍인다.

윤정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김 박사 부부를 본다.
부부의 얼굴은 불안으로 얼어 있다.

윤정우 (조용히, 안심시키듯)
“여기는 Biocognitive Chamber.
인간 뇌의 ‘고유 기억 구조’를 장기 보존하고,
필요할 땐 재동기화하는 곳입니다.”

김인호 (V.O.) (겁먹은 얼굴로)
‘동의한 건 데이터였어…
뇌 구조를 가져간다는 건…
통째 때어가겠다는 건가?’

윤정우가 다행히 수술대로 가지 않고, 오른쪽 구역의 사무실로 향한다.

실용적으로 정돈된 공간.
책상, 원형 회의 탁자, 켜진 대형 스크린.
윤정우가 손짓해 자리를 권한다.
부부가 앉자, 그는 맞은편에 앉아 리모컨을 누른다.

스크린에 떠오르는 큰 글씨.
‘Project LINEAR - Phase 2’

윤정우 “오늘 아드님 새출발 어떠셨나요?”

윤정우가 미소를 띤 채 리모컨을 누른다

스크린에는
- 뇌파 패턴
- 감정 그래프
- 유전자 서열
- 감정 AI 다이어그램이 타임라인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다.

윤정우, 시계를 훑듯 본다.

12:32 PM.

윤정우 (부드럽게 웃으며)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군요.
잠시 쉬며 식사하시지요?”

아내 (조용히 고개 저으며)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김인호도 짧게 고개를 젓는다.

윤정우 “좋습니다. 저도 식사 생각이 없군요.”

윤정우가 사무실 구석에 놓인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낸다.
뚜껑이 ‘딱’ 하고 튀며, 탄산 기포가 흩어진다.

(정적)

38. BC룸(계속) - 실내/오후

테이블을 중심으로 김인호 부부와 윤정우가 마주보며 앉아 있다.

윤정우 (차분히)
“제네시스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5차원 메모리 플레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 해마에뮬레이터

윤정우가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스크린 위로 떠오르는 넓은 실험실 중앙.
거대한 장비가 어둠 속에서 묵직한 진동음을 내며 서 있다.

멀리서 보면 초대형 슈퍼컴퓨터 서버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은 패널이 겹겹이 쌓여 있고,
측면에는 수십 개의 냉각 팬이 돌아가며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다.
수백 개의 케이블이 바닥을 따라 뻗어 나가며,
실험실 전체를 이 장치와 연결한다.

CLOSE UP) 전면 금속 패널

한가운데 불은 홀로그램 라벨이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빛을 바꾸며 글자를 드러낸다.

라벨: 「HIPPOCAMPAL EMULATOR (해마 에뮬레이터)」

윤정우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슈퍼컴퓨터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단순한 연산 장치가 아닙니다.
해마의 구조와 신경회로를 그대로 모방한 장치,
이른바 해마 에뮬레이터죠.”

DOLLY IN)

카메라가 다가가며 패널 틈새의 유리 캡슐들을 비춘다.
안쪽에서는 은은하게 빛나는 젤 액체가 느리게 일렁인다.

곧이어, 카메라가 액체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며 확대하면,
그 속에서 미세한 뉴런 모양의 회로망이 얹히고,
단백질 같은 구조체가 살아 움직이듯 반짝인다.
차가운 기계 같으면서도, 동시에 생체 조직의 느낌이 스쳐 간다.

윤정우가 리모컨을 누른다.
스크린이 해마의 곡선구조가 3D 맵으로 전환된다.
이어 신경망 한 지점을 스크린 전체로 확대하자,
14 진수 코드 스트림 형태로 전환된다.

윤정우가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한다.

수정중

수정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8-4-4. 5차원 메모리 플레인

스크린 위로 흐르는 푸른 칙 코드를 지켜보던 윤정우가 입을 연다.

윤정우

“다음단계는 실용적인 장치의 개발이었습니다.

메모리온을 확장한 장치지요.”

윤정우가 다시 패드를 조작한다.

화면에 푸른 전류가 흐르더니, 살아 있는 뇌 조직이 떠오른다.

투명 챔버 안에서 배양 뇌가 은은히 빛난다.

윤정우

“먼저 생체-양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뇌 조직을 메모리온과 직접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양자 광섬유와 초전도체를 통해 신경 발화 패턴을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생체 전류로 되돌려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뇌의 기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정우가 다시 패드를 터치한다.

시계 모양과 얹힌 파동들이 교차하며 회전한다.

윤정우

“다음으로, 시간 동기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호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맞추는 거죠.
초정밀 원자시계와 양자 얹힘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동기화합니다.”

스크린에 흐르는 장면들이 현재 실험실의 공기와 섞이기 시작한다.

‘우웅’ 자는 저음.

‘QTR’ 률에서 아이의 새로운 존재 설계때 들렸던 익숙한 저음이 들려온다.

스크린이 미세하게 떨린다.

윤정우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5차원 메모리
플레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써서 존재가 새로운 공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시간을 다시 쓰는 첫

번째 도구를 만든 겁니다.”

인호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본다.

이들을 지켜보던 윤정우가 다시 패드를 터치한다.

윤정우

“다음단계는 실증이었습니다. 실험 장면 하나
보시지요.”

하얀 쥐 여러 마리가 떠오른다.

각각 아이콘으로 단순화되어 표시되고, 몇몇 아이콘이 깜박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윤정우

“쥐 실험입니다.
‘5차원 메모리 플레이’으로 우리는 쥐의 뇌에 직접
코딩하고 기억 모듈에 양자 태그를 달아,
양자통신으로 추적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태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였고,
지금은 그 지점에서 일어난 데이터까지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검은 배경으로 전환되며, 그 위에 수많은 점들이 반짝인다.

각은 이동하며 궤적을 남긴다.

윤정우

(화면을 가리키며)

“저 수많은 색의 선들이 ‘새로운 존재의 궤적’입니다.
같은 색은 여러 개의 선들은, 같은 쥐에서 여러 개의
존재가 생겨난 것을 뜻하지요.
이 실험으로 결국… 우주는 다차원의 공간으로
중첩되어 있음이 밝혀진 셈입니다.”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 위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5차원 메모리 플레인’의 실효성을 입증한
다음, 2년 전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드님의 차례였습니다.”

CUT TO) 김인호 부부

김인호, 경악과 공포가 교차된 얼굴.

민정, 스크린에 눈을 고정한 채 눈가에 눈물이 반짝인다.

CUT TO) 윤정우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는 윤정우.

책상위의 패드를 잡는다.

화면을 터치한다.

윤정우

“박사님 이렇게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라도
드려야 겠다는 것이 저와 몇몇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CUT TO) 김인호, 당황한 얼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뗈다.

김인호

“…저도 사실 의외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까지 설명하는 것이…”

김인호가 입을 닫는다.

김인호(V.O.) “하이브리드 윤정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CUT TO) 윤정우

윤정우의 말이 빨라진다.
시계를 들여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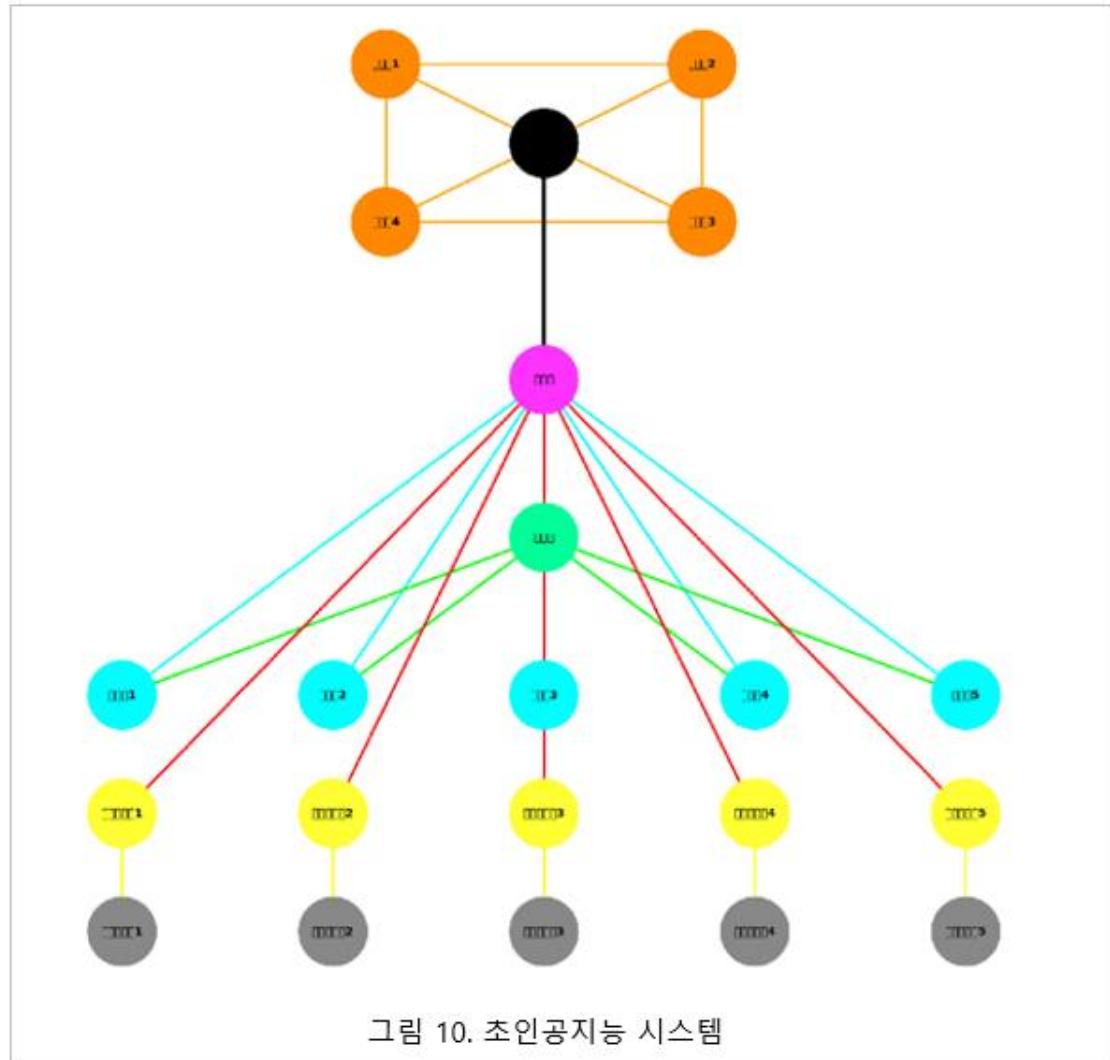
윤정우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시지요.”

윤정우가 패드를 터치하자 「Central Brain Governance」 타이틀의 스크린이
떠오른다.

CUT TO) 스크린

원들이 층층이 배치된 다이어그램.
중앙에는 분홍색 원, 그 아래에는 녹색 원이 겹겹이 드러난다

윤정우 “제네시스의 초인공지능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윤정우가 급하게 말을 잇는다.

윤정우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이 들어갔습니다.
원로도 있었고, 비교적 젊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분들이었지요.
원로 김태식 교수님, 세계적 물리학자 박혁 교수님,
그리고 뇌-단백질 연구의 권위자인 백민영 교수님.
외국의 석학 두 분도 동참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기억을 더듬듯 말을 이었다.

윤정우 “그리고 뇌 인공두뇌 시스템은 결국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물론 연구 윤리 규정은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결정들이 이어졌지요,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우가 스크린을 바라본다.

윤정우 “제가 그림 설명을 하다 보니 다른 길로 빠졌군요.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의 중앙, 분홍색 원이 바로 중앙
뇌입니다.
그 아래 녹색 원은 배양조 속 뇌-단백질
클라우드이지요.
모든 연산 프로세스는 이 클라우드에서 처리됩니다.”

CLOSE UP) 김인호의 눈이 커지며 놀라는 표정
순간 눈이 커지며 놀람이 번진다.
그가 보고 있는 구조는… 이미 자신이 짐작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인호(V.O.) “이건… 탁곤 선배와 함께 구상했던 그 도면
그대로다.”

CUTO TO-FLESH BACK) 실험실 - 밤
실험기구들이 가득 놓인 공간,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벽을 밝힌다.
김인호와 김탁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면. 제목이 선명하다.

INSERT) 「뇌 - 인공지능시스템(초안)」

김탁곤, 테이블 건너편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김탁곤 “곧 초인공지능이 나타날 거야.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지.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성능 지표만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린 인간의 따스함을 내재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해.
하지만… 생명윤리 규정 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하지”

김인호 (다이어그램 위에 시선을 고정하면)

“곧 방법이 생길 거야. 구축 자체는 어렵지 않아.
뇌-단백질 클라우드도 가능하고.
시간 있을 때 준비해 두자고, 선배.”

CUT TO) 윤정우 - 다시 현재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우는 김인호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의 손끝이 스크린을 가리킨다.

윤정우 “그리고 위쪽에 자리한 원들… 그것이 집행부 뇌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부. 명령과 지휘 체계의 최상부라 할 수 있습니다.”

CAMERA – SLOW ZOOM IN)

다이어그램 중앙의 검은 원으로 화면이 서서히 당겨진다.

윤정우 “중앙에 검은 원이 보이시죠?
그것이 이사회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곤 선배와 제가 이사로 있고,
제네시스 경영진 두 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정우, 잠시 말을 멈춘다.
그의 손가락이 검은 원 위에서 멈춰 선다.

윤정우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저 이사회장 자리가
비어 있지요.
그 공백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끊긴다.
정적.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윤정우 “그 자리가 김박사님의 자리입니다. 중앙 뇌의 분석
결과입니다. 김박사님의 놀라운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김박사님은 훈들림 없이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인공지능의
결론입니다.”

CLOSE UP) 김인호
놀란 눈빛. 갑작스러운 말에 숨을 고른다.
아내 민정이 눈을 크게 뜨고 김인호를 바라본다.
김인호가 천천히 입을 연다.

김인호 “우선, 초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정우가 급히 말을 끊는다.

윤정우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뇌 인공지능 시스템의 출발은 기계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어느정도 성공하였습니다.
두번째 목표인 인류의 발전과 영원한 삶. 사실 그것도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네시스 경영진은
뇌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유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한순간 깜빡이며 방 안의 얼굴들이 차갑게 드러난다.

윤정우 “제네시스가 개발하는 뇌 인공지능 시스템은, 핵무기 따위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잘못 사용된다면… 인류 전체가 멸종만도 못한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우의 결연한 누빛

윤정우 “곧 아시게 될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뇌
인공지능시스템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못다한 꿈
꼭 이뤄 주십시오.”

CLOSE UP) 김인호

김인호의 입이벌어진다.

커진 눈동자.

그안에 당혹감과 의심이 교차하며 일렁거린다.

윤정우가 정색을 하며 김인호를 바라본다.

김인호(V.O.)

“말도 안돼. 왜 나지?”

윤정우가 급히 말을 맺는다.

윤정우

“참, 이 시스템은 김박사님이 개발하였다고 탁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역시
탁곤 박사님의 뜻이기도 하구요.”

CLOSE UP) 김인호

깊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인 픽스를 떠난 선배.
수십차례의 연락과 문자에도 답하지 않던 그사람.

김인호(V.O.)

“선배가 제네시스의 뇌 인공지능을...”

윤정우가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본다.

윤정우

“사모님 아드님은 아주 건강하게 잘 출발하셨습니다.
머잖은 날 아드님을 매일 지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박사님이 계시니까요.”

CLOSE UP) 김인호

표정이 무겁게 굳는다.

김인호가 윤정우를 바라본다.

윤정우, 마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습.

김인호가 크게 당황한다.

김인호(V.O.) “윤정우는 뇌-기계 하이브리드인데…
선배,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윤정우가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윤정우 “너무 길었습니다. 두분 죄송합니다. 이제 동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우가 김인호 앞으로 패드를 내민다.

INSERT - 스크린) 「김인호 - 뇌정보 제공 동의」

김인호가 망설임 없이 이름 옆의 빈칸에 사인한다.

윤정우가 화면을 터치한 뒤, 이번에는 민정에게 패드를 내민다.

INSERT - 스크린) 「김인호 - 뇌정보 제공 동의」

CUT T0) 김인호

김인호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움찔한다.

김인호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아내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눈이 커진다.

윤정우가 김인호와 민정을 돌아본다.

윤정우 “아닙니다. 아드님과의 만남을 위한 겁니다. 아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민정의 얼굴에 놀람과 갈망이 교차한다.

아이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그녀의 눈가가 젓는다.

민정 (떨리는 목소리)
“그렇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당황하는 김인호 얼굴.
그녀만은 지켜야 한다는 그의 각오

김인호 “민정씨.
당신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민정이 놀란 눈으로 인호를 쳐다본다.

민정 “여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죠”

CUT T0) 김인호
말문이 막힌다..
카메라 천천히 다가가며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잡는다.

FLESH CUT) 민정의 웃던 과거 모습 / 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 / 그리고 현재의 눈물
맺힌 얼굴.

인호(V.O.) “민정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을, 오히려 내가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구나.”

CLOSE UP)
인호의 손끝, 작게 떨리며 민정의 손등을 감싼다.

그는 입술을 열지만, 목구멍에 걸린 말들은 끝내 나오지 못한다.
눈빛만이 간절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다.
민정을 바라본다.

SPOLIGHT) 민정의 얼굴 위로 은은한 빛이 내려앉는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인다.
민정, 그 떨림을 느끼고 조용히 인호를 바라본다.

민정 “나는 괜찮아요. 아이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CUT TO) 김인호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의 얼굴에 절망과 사랑이 교차한다.

(잠시 침묵)

윤정우, 분위기를 끊듯 앞으로 숙이며 패드를 내민다.

윤정우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정이 펜을 들어 패드위를 스친다.

서명이 끝나자, 윤정우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눈빛엔 만족스러운 기색이 번진다.

윤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동의하신 대로 뇌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따라오시지요.”

윤정우가 사무실을 나간다.
김인호 부부가 뒤를 따른다.

제 4 부로 계속…)